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



고3 수험생 부모님께

부처님과 승단에 기원정사를 보시한 급고독 장자에게 깔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집에 오실 때면 항상 멀리 가 있거나 집안 어딘가에 숨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급고독 장자는 아들의 이런 행동이 영 마땅치 않았고 혹여 이리다가 아들이 다음 생에 천한 세계에 태어나게 될까 언제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궁리하다 결국 돈으로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장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초하루나 보름날 저녁에 부처님께 서 설법하시는 곳에 가 하룻밤을 새고 오면 돈을 얼마 주겠다. 내가 약속하마."

다원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갠 심매 속에서 보낸 다음날 아침, 깔라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따라 아침 공양을 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깔라는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지? 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들롱 나면... 제발 아버지가 부처님 앞에서 돈을 내놓지 마셔야 할 텐데...' 깔라의 이런 간절한 바람도 눈치 채지 못하고 아버지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아침 공양을 올린 뒤에 아들에게도 아침죽을 내주었다. 아들이 그릇을 비워가지 아버지는 약속한 돈 일천 냥을 내놓았다. 그러자 아들은 부끄러워하며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서 받으렴. 약속했지 않았나?" 장자는 아들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거들 권하였지만 깔라는 아주 결손하게 돈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을 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자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수도원에서 지내도록 했는지를 자세하게 고하였습니

돈받으려고 부처님만나 깨달음 얻은 깔라...

평상심 잃기 쉬운 자녀들에게 부처님 말씀

자는 아들에게 또 이렇게 제안하였습니까. "이제 부처님에게서 좋은 말씀 한 구절을 배워 오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천 냥의 돈을 주겠다." 깔라는 다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생전 하지 않던 인사를 부처님께 올리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좋은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부처님은 깔라에게 짧은 시 한 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 한 수를 받은 깔라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이것 몇 줄짜리 시구름이야...'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한 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줄도 외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깔라가 그 시를 외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시 한 수를 읊고 또 읊었지만 외우지 못한 깔라. 그는 앞 구절을 외운 뒤에 뒤 구절을 기억하려고 뒤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뒤 구절이 생각하면 앞 구절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깔라는 그 시를 다 외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깔라는 깊은 삼매에 들어 그 의미를 터득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의 첫 번째 경지인 수

다. 사연을 다 듣고 난 부처님은 말하였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아들 깔라는 이제 세계를 다 스러는 정룡성왕보다 그리고 천상의 브라흐마 천왕보다 더 큰 보배를 갖게 되었구나." <법구경> 제178개송의 인연이야기) 11월 17일에는 대입수능시험이 있었지요. 각 사찰과 교회, 성당에서 수험생의 어머니는 시험시간에 맞추어 아이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반의 반이라도 헤아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부모님 자신을 위하여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이라는 재물 보다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는 조건들을 착실히 다져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찌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보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려야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급고독 장자처럼 정말 중요한 보물을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긴장이 풀려 자칫 평상의 마음을 잃기 쉬운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 한 자락을 들려주고 외우게 하는 일입니다. ■ 이미정(중국경원역경원)



혜정 스님은 울·재가자들이 산을 오르며 호연지기를 키우라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물러섬이 없는 원력을 굳건히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것이 어디있어? ‘업’ 말고...”



혜정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의 말에서 힘이 묻어났다. "산 오르는 일이 간단해 보이지? 산을 오르는 일도 원력이 필요해. 무슨 일이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뭐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반드시 그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원력말이야. 원력이 없으면 뭐든 성취할 수 없어요. 원력은 모든 일의 목적이 된다는 말이지." 스님은 누구나 원력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력은 불자들의 필수 사항이다. "모든 힘을 모아 쌓은 공덕을 원력으로 회향해야 됩니다. 성불도 마찬가지야. 원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어. 단박에 깨지기 어려우니까 원력을 세워 수행하는 거지. 무엇보다도 '고통 받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대원력을 꼭 세워야 해. 이것이 중요해요." 스님은 '원이 없는 수행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력 없는 수행은 '허구'라고 말했다. 원력은 수행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다. 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의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시, 지계 등의 육바라밀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실천해야 할 생활덕목이지만, 스님은 인욕바라밀을 특히 강조했다.

"인욕은 나를 버릴 때, 모든 이타심이 확실한 가치관으로 정립될 때 비로소 이를 수 있어. 억지로 참는 척하는 것은 인욕이 아니라, 감정을 자제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인욕입니다. '저 새끼' 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는 참는다면 그건 인욕이 아니라, 피차(彼此)와 시비(是非)가 없고 선악이 끊어진 그 자체가 인욕이야." 예를 하나 드렸다. "테이프에서 주력이든 명상음악이든 <법구경>이든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 그런데 테이프를 끄면 소리가 안 들리겠지. 그럼 안 들리는

원력없는 수행은 허구...크게 세워라

피차-시비-선악 넘어선 인욕 실천을

테이프 소리와 들렸던 소리는 둘일까? 들이 아니야. 이처럼 인욕은 '이거다 저거다'를 따지는 상대성을 초월한 경지에 있어요. 때문에 인욕바라밀을 성취하려면, 우선 '나'라는 아상을 버려야 해. 인욕을 못하는 이유는 아상 때문이야. 나라는 존재를 앞세워서 그렇지. 나란 존재를 완전히 버렸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내 몸종아리까지도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할 때가 참된 인욕입니다." 스님은 '중생놀이'에 물든 중생심을 거둬내라는 경책으로 말을 이었다. 재물(財) 색욕(色) 식욕(食) 명예(名) 수면(睡) 등의 오욕락(五欲樂)에 물든 존재가 바로 중생이다. 이런 '오욕락'이 중생의 실체라면서 스님은 "중생은 오욕락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맞았든 생을 사는 셈이지. 중생놀이에서 벗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www.bojangsa.co.kr

대학원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과장
2. 모집인원
3. 지원자격
4. 전형일정
5. 특 전

초빙교수를 모집합니다
1. 초빙분야
2. 지원자격
3. 제출서류
4. 제출기간
5. 제출처
6. 기타사항



보장사 영각당 (납골당) 회원모집
1.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2. 단종이 편리합니다.
3.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됩니다.
4. 교통이 편리합니다.
5. 주차가 편리합니다.
영각당 납골당 이용가격

나야 성불할 수 있는데도 말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잠시 뜸을 들인 스님은 “단박에 없앨 수 없는 오욕락을 말끔히 거둬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한 생각’에 달려 있어요. 우주 본체가 마음이고, 무변한 대자유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 중국 조사 스님의 법어 중에 ‘심여벽해능용물 인사청면불염진심(心如壁海能容物 人似清澗不染塵)’이란 말이 있어요. ‘마음은 푸른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인품은 맑은 연꽃이 추한 곳에서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오욕락에 물들지 않는 거지. 그 이치를 알겠어?”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 여쭙었다.  
 “〈화엄경〉에 나온 말을 해 볼까. ‘믿음(信)은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의 좋은 뿌리를 기른다’고 했어. 스님이란 재가자든 믿음은 마음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야. 화두공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 믿음이 깊어야 화두를 잘 이어갈 수 있지. 화두를 들 때, 의심이 이 우주에 꼭 차야 화두를 타파할 수 있거든.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가지면 안 돼. 확실히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스님은 불자들이 가져야 할 공부 자세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갔다.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쳐내라’고 말이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달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말이지. 조사 어록에 또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이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물리지만,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묻다고 했어. 사람이 본질이지. 그래서 불자들이 공부를 하려면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해. 지업에서 해매면 근본을 망각하게 돼요.”

스님은 육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특히 경계했다. 공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고 중생들이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물품이라도 하나의 옷이야. 우리 몸은 마음의 옷일 뿐이지. 옷이 낡고 때가

### 믿음은 마음공부의 시작이자 끝 시간 생명처럼 소중하게 써라

물론, 땀이 입어야 되고 더 낡으면 옷을 갈아입어야 해. 그런 옷에 왜 집착을 하지? 도를 깨친 역대 조사들은 몸 버리는 것을 못 갈아입는 것으로 여겼어. 때문에 죽음이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물론 생로병사가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야. 생로병사에는 예외가 없어.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과제인 셈이지.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오래오래 살라는 욕심 때문에 죽음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사람들은 사는 데에만 열을 올리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죽음을 두렵게만 여기지. 하지만 준비를 해야 해. 누구든 언제 가든지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해. 옛 조사들은 죽음을 칼로 허공 베는 것으로 비유했잖아. 칼로 허공을 벤다고 아픔이 있겠어.”

불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은 ‘마음 쓰는(用心)’ 법에 대한 법문으로 이어졌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님은 전제했다.

“만약 오늘날이라도 법이 없어지면 집중감이 변할지 몰라. 사람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고, 집중 같은 마음을 가지면 짐승인 것이야. 짐승은 밥만 먹어도 배부른 줄 알고 죽한테, 사람은 잔뜩 먹고 나도 욕심을 부리거든. 인간이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합부로 쓰면 안 돼요. 그것이 업이 돼, 욕심이 팍 차서 자기 것인양 살게 되거든. 가져갈 것도 가져오는 것도 없이 업만 가지고 가는데...”

사실 자기 것이 어디 있어? 부인도 자식도 자기 것이 되겠어. 각자 인연에 따라 사는 건데, 같이 가려고 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거지.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지은 업밖에 없어. 때문에 이를 인과응보라 했어요. 이것이 우주법칙이야.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 결과는 좋은 나쁘든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야.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당부했다.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어. 다만 인간의 필요로 규정해 애용하고 있을 뿐이야. 편이에 따라 인간이 이러저러 끊어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사는 것 같아. 주어진 시간은 늘 제한돼 있는 데도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냉정하게 따지면 백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이야. 덧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생명을 헛되이 죽이는 것과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글=김철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해발 700m 20년 넘게 오르내려

**혜정 스님은** 혜정 스님을 뵈자마자, 실례를 무릅쓰고 ‘장편지를 먼저 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해발 7백 미터에 자리 잡은 문수사를 20년 넘게 오르내린 스님의 다리 근력이 어찌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짐작대로 뜰처럼 ‘딱딱’ 했다.

“난 그 흔한 자가용도 없어. 가끔 시내에 불 입어 나와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 좀 팔다 싶으면, 버스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지.”

그래도 산중에 사시니까 자동차가 필요할 텐데... 돌아온 스님의 대답은 이랬다. 시주 받은 돈을 올버라 써야 시주자에게 일이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출가 48년 동안 한결같이 ‘수행자는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스님은 심각한 문수사를 중창하는 뜻도 설명하셨다. 고려 예종 4년 탄현 대감국사가 세운 호국사찰인 문수사가 ‘나라 사랑’을 일깨워주는 도량이 됐으면 하고, 태고 보우국사가 이곳 문수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출, 재가자들도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창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의 문수사 중창 원력은 포교사 양성으로 옮겨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해주는 일이 한국불교가 살 길이라는 생각에서다. 때문에 스님은 매주 일요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강좌를 열고, 법문을 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다. 또 사이버 포교를 위해 올레 말에는 문수사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이를 위해 틈틈이 컴퓨터도 배웠다고 하셨다.

혜정 스님은 1931년 충북에서 태어나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후,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마산 성주사 등에서 수행을 했다. 현재 조계종 국제포교사, 청담문화재단 이사, 도선사 선원 선덕으로 있다.



“사람을 무는 사자가 돼야지, 돌을 무는 개가 되면 안된다”는 혜정 스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추 것을 당부한다.



###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해학 스님 (下)

해학 스님은 법화경 법사다. 군법사로 있다보니 고민이 생겼다. 피가 필립 풀는 군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수도 없고, 가만히 법당에 앉아 참선만 하게 할 수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들이 법당에 오는 이유는 부처님이 좋아서 오기도 하지만 휴식이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 지독한 외로움을 군중 속에서 달래려고 오기도 한다. 그리고 남들 다 가는 그곳에 자기도 빠질 수 없어 오기도 하는데 법사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으로 재충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절실하게 다가가는 신념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이리저리 궁리 끝에 평소 수지하는 <법화경>



그림·문병성

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사인 덕암(德菴)스님의 영향을 받았다. 덕암 스님은 생전에 “나는 중으로서 해야할 열불, 간경, 참선, 법매, 금어 중에 서 그림 그리는 금어를 빼놓고는 다 경지까지 가 보았다. 그런데 요즘 중들은 기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많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야. 믿음이 아랫물 도의 근본이며, 모든 공덕의 어머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 하면서 <법화경>의 믿음과 <화엄경>의 믿음을 비교해 주시고는 했는데 해학에게는 법화의 믿음이 더 닿았다.

동국대 학부에서 <법화경> 믿음에 대한 교섭을 중심으로 졸업논문을 쓰기도 한 스님은 대학원에 등록하고 <법화경>을 연구과제로 삼아 정진했다.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출발점에서 법사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또 현재의 대승불교 권에서 하고 있는 신행활동의 거의 모든 것이 <법화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고, 불타의 중생을 위한 역용은 오로지 일체중생의 성불 하나로 귀결된다고 하는 일승(一乘)사상을 연구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유학을 꿈꾸다가 군에서 전역한 뒤 1994년 동국대 재매교인 일본 대정대의 교환 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일본에 가서도 어려운 일은 많이 있었다. 마침 고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한국 돈의 일본 돈에 대한 환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졌다.

해학은 먼저 대정대서 공부한 사형 해일(海日) 스님이 조성해 놓은 절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다지는 기도와 함께 교포들을 위해서 불공도 하고 법문도 해 주면서 유학생활을 꾸려나갔다. 공부하는 틈틈이 일본과 한국의 믿음에 관한 관념 그리고 현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사찰 순례도 많이 하였다.

해학에게 제일 관심이 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법화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히에이산의 엔라쿠지(比叡山 延曆寺)에 갔을 때의 충격이 컸다. 관세음보살을 진건하는 삼매수행이라든가, 6년씩 진행되는 12년간의 농산행(農山行)을 다 마친 이는 일본스님들도 외국 스님들도 우리나라의 법흥(法興) 스님이 외국인으로서 유일하며 여불(如來)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 등도 감동적이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일체 모든 중

### 정초기도 회향때 신도들에게 ‘법화경’ 구절 인쇄해 나눠줘

생은 부처님으로도 보고, 그들을 부처님의 입장에서 천아들로도 보는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느끼면서 일일이 절하면서 하심과 동체자비를 느끼는 수행법이었다. 해학 스님은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법화경>의 성립사에 관한 주제로 학위 논문을 썼고,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이다.

해학은 <법화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몇 가지 들이게 되었다. 첫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자신은 <법화경>에 의한 믿음과 화동체계를 갖추겠다는 신념 속에서 아침 예불이 끝나면 우선 <법화경>을 1시간 정도 독송한 뒤에 다른 경전을 보거나 연구서적을 보는 기초수행을 하고 있다. 자칫 참고서를 먼저 보고 교과서는 나중에 보는 알팍한 믿음을 갖지 않겠다는 기초적인 훈련이기도 하다. 둘째, 모든 이들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존재라는 주의를 입각하여 누구나 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회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남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현실에서 펼치기 위해 망해사 안에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꾸려서 움직이고 있다.

셋째, 스님의 <법화경> 사랑은 정초기도 회향 시에도 잘 나타난다. 대개 정초기도를 회향하면서 신도들은 몸에 무엇인가를 지니고 싶어하는데 망해사에서는 <법화경> 한 구절을 발해해 인쇄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신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참된 선교방편(善巧方便)이라고 굳게 믿는 해학 스님이 나는 좋다.

■ 관악산 자언암 상임법사

##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옐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창 (현재 8분) 안내: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몰바이-옐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롬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몰바이-옐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롬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롬비니-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기아-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민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장애, 뇌혈액 장애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심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간경화,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심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병중,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奉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培氣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  
 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리 최저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